

월요광장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

전 세계 클래식 피아니스트들이 연주 회용으로 가장 선호하는 악기는 스타인 웨이피아노다. 이 피아노의 제조 회사에서 최근 디지털 장치가 장착된 자동피아노를 출시했는데, 아이패드 앱과 연동하여 세계적 피아니스트들의 건반 터치를 자동 연주로 거의 완벽하게 재생해 낸다고 한다. 이 피아노를 구입하면(최소 1억 원이 넘는다), 예컨대 유자왕이 연주하는 초절기교의 '왕벌의 비행'을 콘서트 무대에서 그녀가 만들어 내는 음색과 뉘앙스 거의 그대로 내 거실로 옮겨 올 수 있는 것이다. 제조사가 광고하는 대로 그것은 내 거실에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를 초대하여 하우스콘서트를 여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물론 '자동피아노'(player piano)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며, 이미 19세기

아우라 복제 시대의 공연예술

말과 20세기 초에 유럽과 미국에서 제작되어 널리 보급된 바 있다. 구멍 뚫린 두 루마리 장치를 쓰기 때문에 '피아노 롤'이라고도 불리는 이 자동피아노는 1920년대 중반 음반과 축음기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마이크로폰을 이용하는 전기녹음 기술 도입과 함께 음반의 재생 음질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미 1세기 전에 구닥다리 발명품으로 전락한 자동피아노가 21세기 첨단 디지털 문명 시대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흥미롭다.

1세기 전에 독일의 비평가 벤야민과 아도르노는 대량 복제기술과 관련한 논쟁을 벌였다. 주로 영화와 관련하여 논쟁을 펼친 벤야민의 입장을 아주 단순화하자면 이렇다. 예컨대 영화 '알라딘'이 미국 할리우드에서 상영되든, 서울에서 혹은 광주에서 상영되든 다를 게 없다는 것. 대량 복제기술이 예술작품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진짜'나 '원본'을 따질 필요가 없게 함으로써 예술 향수의 대중화와 민주화를 이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음악에 초점을 맞춘 아도르노의 입장은 이렇다. 대량 복제기술이란 21세기식 신조어라 말하자면 '복붙'(복사하

여 붙이기)을 부추긴다는 것. '복붙 메시지'의 무성의와 진정성 없음이야말로 '대중음악'과 대량 복제기술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현상을 바라보는 입장은 적잖이 상반되지만 양자 사이에 일치되는 견해는 기술 복제가 예술작품의 고유성(진정성)과 원본성을 해체한다는 사실(아우라의 붕괴)이다.

하지만 최근의 디지털 융합기술은 복제기술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 가고 있다. 그것을 '아우라의 복제'(재생)라고 하면 어떨까? 앞서 예로 든 자동피아노의 귀환은 이 점에서 시사적이다. 스타인 웨이 피아노 앞에 앉은 피아니스트의 고유한 음색, 그 '아우라'를 있는 그대로 재연하겠다는 발상, 피아노 구매자는 그 피아니스트와 네 손 연탄곡을 함께 연주할 수도 있으며, 업그레이드 모델에서는 직접 녹음과 편집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복제기술은 이제 연주를 기록한 '물질'(음반)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를 둘러싼 실제적 '체험'을 제공하려 한다. 물론 이 변화의 정치경제학적 계기는 음반 산업의 쇠락이다.

공연 영상물의 제작과 상영의 발달도 달라지고 있는데, 광주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썩은스크린'(SAC on

Screen) 상영회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썩은스크린'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제작한 공연영상물이 녹화된 형태로 혹은 실황중계의 형태로 지역의 공연장에서 상영되는 이벤트를 뜻한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더 메트 라이브 인 HD', 서울의 국립극장에서 2014년부터 매년 시즌 프로그램으로 삼고 있는 영국 왕립 극단의 'NT 라이브'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21세기적 이벤트는 종종 지역 고 문화 격차의 해소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한편으로 서로 다른 지역 공연장에서의 집단적 공연 체험의 일회성과 고유성을 새롭게 만들어 내라는 시대적 요청을 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중심-지점'의 관계에서 구심력과 원심력을 아울러 가진다. '아우라 복제 시대'를 디지털 문명과 문화기술의 넓은 맥락에서 해석하면서, 중심문화 혹은 고급문화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문화 생산의 새로운 맥락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공연예술의 '아우라'는 근거리의 지역적 생활공간에서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칼럼

증인의 자세와 증인을 대하는 자세



황준홍 변호사

옛날 어떤 왕이 장님들에게 코끼리를 만져 보게 한 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었다.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뱀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창과 같다'고 말했으며,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곡식을 고를 때 사용하는 키와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나무와 같다'고 했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뱃줄과 같다'고 했다. 결론은 각자 자신이 만진 부위에 따라서 코끼리가 어떤 것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는 것이다.

장남과 코끼리 이야기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설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릴 적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다. 어릴 적에는 본인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정도의 교훈을 주는 우화 정도로만 인식하였는데, 최

근 사건의 목격자인 '증인'이 화두여서 그런지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이다. 매체에서 사건의 목격자 또는 피해자를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한창인 탓인지, 우리 사회에서 증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증인은 법률적으로는 법정에서 출석하여 과거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증인은 법정에서 출석한 사람에 말하는 것이고 경찰, 검찰에 출석하여 목격 진술 등을 하는 사람은 참고인 정도로 부른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진술하는 단계, 절차 등과는 관계없이 당해 사건에 관한 목격자 또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어쩌되었건,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언론계 등에서도 일반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사실, 어떠한 장면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은 가장 단순하고 무난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면 족하다. 예를 들어 위 장남과 코끼리의 이야기에서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길고 동글다 정도의 표현만 하면 족하지 굳이

무엇과 비슷하다거나 코끼리가 무엇과 같다고 표현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기존에 자신이 아는 지식과 결부하여 말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치 판단과 거리가 먼 진술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까지 결부되면 더욱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속칭 '뺨부'를 들고 있는 장면을 본 어떠한 사람은 야당이 대정부 강경 투쟁을 하려고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야당이 여당,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증인이 객관적인 증언을 잘못하는 것은 비단 증인의 탓만이 아니고 증인을 대하는 사람이나 질문을 하는 사람의 탓도 있다.

증인도 사람인지라 분위기에 따라서, 또는 분위기를 봐가면서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피해갈 수밖에 없다. 위 장남과 코끼리의 이야기에서, 장남이 왕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굳이 코끼리를 만지고 설명을 했을까 싶다. 그리고 장남이 제대로 된 코끼리를 설명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장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의 한

부분만을 만지고 답변을 하게 한 왕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와 같이 증인으로 증언을 하기도, 증인에 대해 객관적인 증언을 받아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법정에서는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한다던가 질문자에게 유도 질문을 금지한다던가 하는, 증인이 지켜야 하는 규칙과 증인을 대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으나 사회에서는 그러한 규칙 또는 사회적인 약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의 증인이 나타났을 때 그 증인의 한마디가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반면 증인의 직업이 변변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인의 증언을 폄하하기도 한다.

또한 누군가를 유죄로 만드는 증언을 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꼭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여겨지는 것이 당연시되나, 누군가를 무죄로 만드는 증언을 하는 증인은 부정한 청탁이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심만 하기도 한다. 증인에 대한 매체의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특정 사건과 무관하게 증인의 자세와 증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社說

표류하는 흑산공항 정부 특단의 대책 있어야

흑산공항 건설이 3년째 표류 중이다. 국립공원위원회(국립공원위)의 심의에 가로막힌 것이 그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국립공원위의 요구에 따라 환경성·안전성·경제성 등을 검토해 공항 계획 변경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2016년 10월 사업자인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에 심의를 요청한 이후 3년째 별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2016년 1차 심의 보류에 이어 2018년 10월 2차 심의에서도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정점 상황을 보완한 뒤 재신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립공원위의 높은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환경부는 지난 5월 국립공원위 민간위원 15명 가운데 4명을 교체했으나, 전남도·신안군 등의 기대와는 달리 모두 환경 관련 교수나 시민단체 관계자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위 민간위원을 환경부 추천 인사로만 채우도록 한 자연공원

법 개정안도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안건의 재상정 시기마저 언급하기 어려울 만큼 전망이 밝지 않다. 장기 표류나 더 나아가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에 따라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환경부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건의하는 한편 확정된 국가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 심의 면제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흑산공항은 급증하는 해양 관광객의 편익을 높이면서 동시에 섬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차원뿐만 아니라 흑산도 주민들이 매년 115일을 선박 결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섬 주민의 기본권 존중 차원에서 흑산공항은 건설해야 할 것이다. 물론 환경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환경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좌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사고 오히려 늘었다니

세월호 참사 이후 전남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되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해양 사고를 막기 위해 갖가지 안전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 사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포목항·여수항·광양항 등 전남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는 2014년 21건, 2015년 25건, 2016년 37건, 2017년 58건, 2018년 5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4년 동안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선박 종류별로는 여선 사고가 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객선·유조선·화물선 등 상선 사고 역시 증가 추세다.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전남 여선은 2017년 기준 2만 6939척으로 바다와 인접한 14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많다. 상선

은 1279척이다. 이처럼 등록된 선박이 많은 만큼 해양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상당수 사고가 다른 선박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거나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운항하다 발생한 인재라는 점이다.

또한 과적 및 정월 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선박 안전 검사 미실시, 무면허 운항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지난달 30일까지 전국에서 실시한 특별 단속에서는 이런 행위가 504건이나 적발됐다고 한다. 아무리 안전 대책을 강화해도 이를 지키지 않을 땐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 섬을 찾는 여행객과 낚시객 등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제도 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고려 성종 때 압록강 동쪽의 영토에 설치한 6개의 주(州)를 '강동 6주'라고 한다. 군사적 요충지인 이곳은 서희(942~998)가 거란의 장수 소손녕과의 담판으로 획득한 영토다. 당시 고려는 오랑캐인 거란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서경 이복의 땅을 내어 주고 평화조약을 맺자는 현실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서희는 거란의 의도가 고려와 송나라와의 국교 단절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당시 거란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려가 자신들은 상대하지 않고 강 건너 송과 교류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다. 서희는 "고려가 거란과의 교류

되지만, 일련의 움직임이 치밀한 시나리오에서 비롯됐다는 데 이견이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인의 덕목으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꼽았다. 국익을 위해선 명분 못지않게 실리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취임 후 방일 시 일본 내 한국 호감도가 90%에 달했다는 현실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서희는 거란의 의도가 고려와 송나라와의 국교 단절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당시 거란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려가 자신들은 상대하지 않고 강 건너 송과 교류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다. 서희는 "고려가 거란과의 교류

가 불가능한 것은 압록강 일대 여진족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다. 결국 서희의 지략으로 고려는 북진정책 장애물인 여진족을 몰아내고 강동 6주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파국이다. 우리의 반도제 소제에 대한 수출심사 강화는 강제징용 노동자의 배상 판결과 무관치 않다. 한편으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반한 감정을 이용하려는 아베 정권의 정략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우리의 대응에 따라 일본의 추가 조치가 예상

되지만, 일련의 움직임이 치밀한 시나리오에서 비롯됐다는 데 이견이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인의 덕목으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꼽았다. 국익을 위해선 명분 못지않게 실리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취임 후 방일 시 일본 내 한국 호감도가 90%에 달했다는 현실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서희는 거란의 의도가 고려와 송나라와의 국교 단절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당시 거란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려가 자신들은 상대하지 않고 강 건너 송과 교류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다. 서희는 "고려가 거란과의 교류

가 불가능한 것은 압록강 일대 여진족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다. 결국 서희의 지략으로 고려는 북진정책 장애물인 여진족을 몰아내고 강동 6주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파국이다. 우리의 반도제 소제에 대한 수출심사 강화는 강제징용 노동자의 배상 판결과 무관치 않다. 한편으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반한 감정을 이용하려는 아베 정권의 정략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우리의 대응에 따라 일본의 추가 조치가 예상

합스의 전략 저자인 김연철 인재대 교수는 "똑같은 기술이라도 상황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협상의 기술은 줄타기에서 균형을 잡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원칙에만 매몰돼 실리를 잃거나,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가치가 훼손돼서도 안 된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선비 기질이 강한 데다 주류인 586정치인들도 다수가 운동권 출신이어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타래처럼 얽힌 정세, DJ의 '서생과 상인'에 답이 있다.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서생과 상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건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호남 의병, 보성에서 합성을 올린다



노기욱 (사)호남의병연구소 소장

보성군은 전남 22개 시·군 중 동부와 서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예로부터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면 스스로 의병이 되어 나선 곳이다. 호남 의병의 상징적인 거점으로 호남 의병의 특징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 중 하나이다.

호남 의병의 거점으로 보성군이 합성을 크게 올린 것은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의진을 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대장 박광전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전장의 지휘권을 임계영에게 인계하여 싸우게 하였다. 정사제는 사재를 털고 일가 친척과 가동들을 의병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전라좌의진 창의격문을 발송하여 심금을 울렸다. '난중잡록'의 저자 조경남은 성주 전투와 남원 전투에서 승리한 전라좌의진의 근왕 의병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유재란 시기 조선 수군은 일본군에 패전하고 절멸의 상황에서 보성군으로 들어와 의병 지원과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호남 의병은 일제히 의병으로 나섰다. 보성군민들은 국난 극복을 위해 항선을 이끌고 수군이 되어 해상 의병의 초석이 된 것이다. 보성군민은 인근 지역 덕망이 있는 의병장 전방삭·송대환·최대성·황원복·김덕방 등과 연합하여 해상 의병 활동에 나섰다. 이들의 해상 의병 연합 작전은 침산 안치 죽전 등에서 적을 격파하였다.

이순신의 '약무호남시무곡가'((若無湖南是無國家)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음을, 보성군 지역에서 활동을 통해 살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순신이 패전한 잔존 수군 몇 명을 이끌고 군량 한 톨이 없는 상황에서 식량을 구한 곳도 보성군 고내마을이다. 이순신이 식량을 얻은 곳이라 하여 그 지명마저도 오늘날까지 득량(得糧)이라고 전할 정도이다. 이순신이 조선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금신전선상유십이'(今臣職艦尙有十二) 장계를 올린 곳도 보성군 열선루이다.

'덕수 이씨 족보' 보성판에는 '이순신이 어린 서자 '훈'과 '신' 두 아들이 너무 어려서 보성군 집에 맡기고 전쟁에 나갔

다'고 하였다. 그가 격정 없이 보성에 식솔을 맡기고 어려움이 없이 전쟁에 나가게 한 것도 보성이다. 국가를 보장할 힘이 보성군에서 발현한 것이라 하여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정묘·병자호란이 닥치자 호남 의병은 다시 일어섰다. 이때 보성군에서 안병준은 호남 의병 창의진을 구성하여 각지에서 달려온 수백 명의 의병을 모아 여선까지 호남을 대표하며 굳이 코끼리를 만지고 설명을 했을까 싶다. 그리고 장남이 제대로 된 코끼리를 설명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장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의 한

안규홍(安圭洪)은 일본 보병 14연대 정규군에 맞서 18개월 동안 26차례 전투를 치렀다. 안규홍은 일본군이 기록한 '진중일지'에서 그를 '수곡'로 표현할 정도로 심남일 의병장과 연합하며 전남 중동부 지역과 해안 지방을 휩쓸었다.

1908년 4월 26일 보성 파청고개 첫 전투에서 히라이(坪井)와 미도(永戶) 상등병을 사살하였다. 흥영기 순천대 교수는 "안규홍 의진은 1908~1909년 사이에 보성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의 대표적인 의진이란 명성을 얻었다"고 하였다. 2017년 12월 문화재청은 답살이 안규홍 의병장이 동소산 머슴쇠로 살았던 보성 가옥은 호남 의병을 상징하는 등록문화재 제699호 '보성 안규홍-박제환 가옥'으로 지정하였다.

이처럼 보성군은 한말 의병과 관련된 선양 사업의 추진 장소로 적합한 역사성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남도의병 역사공원 사업을 보성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최근 보성군 의병장 후손 200여 명이 호남 의병 거병 장소였던 보성군청에 모여 호남 의병 표호의 합성을 나타내기로 약속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